

독일어 관용어구에 나타난 결합가 연구*

정 승 화 (창원대)

I. 서론

결합가 이론적 측면에서 볼 때, 관용어구란 통사-의미적 결합 규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단어들로 구성된 결합체이다. 게다가 관용어구를 구성하고 있는 단어들은, 원래 지니고 있던 고유의 어휘적 의미에서 유추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별 문 제없이 통용되는 총체라고 볼 수 있다.

관용어구에 관한 대표적인 학자로 손꼽히는 로트케겔 Rothkegel(1973, 5) 은 관용어구를 내용적 관점에서 크게 ‘일차적 관용어구’와 ‘이차적 관용어구’ 로 구분하고 있다. 그는 전자를 ‘사전에서는 그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의심적 통사 결합체 exozentrisch-feste Syntagmen’로, 후자를 ‘문맥 파트너의 교체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고유한 의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중 하나는 존재해야 하는 것’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 (1) sich ins Zeug legen 노력하다
- (2) Stein und Bein schwören 확고하게 맹세하다
- (3) kurz angebunden 무뚝뚝한
- (4) kalte Miete 난방비를 제외한 방세
- (5) blinder Passagier 무임 승차자

* 이 논문은 2013~2014년도 창원대학교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예문 (1)-(3)은 하나의 구성체를 이루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각 성분들 간의 교체가 불가능하며, 만약 구성 성분 중 하나라도 교체가 될 경우 이 구성체의 의미는 붕괴된다. 반면 (4)-(5)는 이 어구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이 일부 교체될 수 있으나,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성분들 중 하나는 반드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구의 의미가 일부 전이된다. 따라서 (1)-(3)은 일차적 관용어구이고, (4)-(5)는 이차적 관용어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구성 성분들 간의 내적인 규칙 또는 특성을 가진 결합체들이 독일어 관용어구 사전에 무수히 기록되어 있지만, 이를 다 다룰 수는 없다. 본 논문에서는 로트케겔이 분류한 두 가지 기준 중 일차적 관용어구, 즉 ‘은유화 **Metaphorisierung**’ 과정을 통해 나타난 결합체가 오랜 시간에 걸쳐 대중성을 얻어 완전히 다른 의미로 탈바꿈한 관용어구에 제한하여 연구하되, 이를 동사, 형용사, 명사를 중심으로 관용어구 결합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대중 매체나 문학 작품 혹은 직업 특수적인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할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 결합체들, 다시 말해 ‘특수화 **Spezialisierung**’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관용어구들의 결합 유형들도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럼 먼저 동사 관용어구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자.

II. 동사 관용어구

동사 관용어구는 그 수가 매우 다양한데, 이러한 양적 구조는 기저 성분의 다양성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Vgl. Duden 2002; Rothkegel 1973, 142ff.). 동사 관용어구의 기저를 살펴보면, 동사 자체만으로 관용어구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명사나 형용사와 함께 결합되어 형성하거나 문장 속에 이미 보족어가 내재되어 있어 동사 관용어구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동사 관용어구에서 이들 각 성분들과 결합될 때는 동사의 결합가 **Valenz** 관계는 매

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관용어구의 중심에는 동사가 있어, 그 동사의 의미자질에 따라 보족 규정어 *Ergänzungsbestimmungen*가 구별되기 때문이다. 이제 이를 토대로 다양한 동사 관용어구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자.

II.1. 명사와 함께 결합하는 동사 관용어구

명사는 동사와 결합가 관계에서 볼 때 그 어떤 품사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동사와 함께 다음과 같은 다양한 관용어구를 형성하고 있다.

i) '(무)관사 + 명사 + 동사' 관용어구

- (6) *die Hände regen* 열심히 일하다
- (7) *das Nachsehen haben* 아무 소득 없이 일하다
- (8) *das Eis ist gebrochen* 연합이 이루어지다
- (9) *Theater machen* 야단법석을 떨다
- (10) *Schule machen* 모방하다
- (11) *Staat machen* 깊은 인상을 심어주다
- (12) *die Hand an sich legen* 자살하다

위의 예문 중 (6)-(8)은 명사 앞에 정관사가 붙어 동사 관용어구를 형성하는 경우이고, (9)-(12)는 명사가 관사 없이 동사와 결합하여 관용어구를 형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ii) '(정관사) + 형용사 + 명사 + 동사' 관용어구

- (13) *den dicken Wilhelm spielen* 자랑하다
- (14) *die letzte Hand anlegen* 완성하다
- (15) *freie Hand haben* 재량권을 가지다
- (16) *ganze Sache machen* 어중간하게 하지 않다

위의 예는 모두 형용사가 부가어적으로 사용되어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를 형성한 후, 다시 동사와 결합하여 독립된 의미를 지닌 관용어구를 만들고 있는 경우이다. 차이가 있다면 (13)-(14)는 형용사 앞에 정관사가 사용된 경우이고, (15)-(16)은 형용사가 단독으로 명사를 수식하여 관용어구를 형성하는 경우라는 점이다.

iii) ‘전치사 + (관사) + 명사 + 동사’ 관용어구

- (17) auf dem Pflaster liegen 일자리가 없다
- (18) aus dem Gleis kommen 삶이 꼬이다
- (19) bei der Sache sein 집중하다
- (20) mit der Sprache rausrücken 솔직히 말하다
- (21) in Schwung kommen 진척되다

위의 예는 전치사와 명사가 동사와 결합하여 관용어구를 형성하는 경우로, (17)-(20)은 전치사와 명사 사이에 정관사가 사용된 반면, (21)은 전치사와 명사 사이에 관사가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iv) ‘명사 + 명사 + 동사’ 관용어구

- (22) Rede und Antwort stehen 책임지다
- (23) Haut und Knochen sein 몹시 여위다
- (24) Gut und Blut einsetzen 모든 걸 희생하다
- (25) Feuer und Flamme speien 분노를 드러내어 말하다

위의 예는 하나 이상의 명사끼리 상호 결합하여 복합체를 형성한 후 다시 동사와 결합하여 관용어구를 형성한 경우에 해당한다.

v) ‘전치사 + (관사) + 명사 + 동사’ 관용어구

- (26) vom Pferd auf den Esel kommen 가난하게 되다

(27) vom Hundertsten ins Tausendste kommen 주제에서 벗어나다

(28) von Regen in die Traufe kommen 상황이 더욱 나빠지다

위의 예는 iv)와 같은 명사 복합체 앞에 전치사가 추가되어 동사 관용어구를 형성하는 경우로, (26)-(27)은 관사가 사용된 반면 (28)의 경우는 필요에 따라 관사가 사용되기도 하고, 생략되기도 한 경우에 해당한다.

vi) 부사적 성격을 가진 전치사군으로의 확장

(29) für jn. Kastanien aus dem Feuer holen

누구를 위해 불쾌한 일을 대신해 주다

(30) die Beine in die Hand nehmen 매우 빨리 달리다

위의 예는 하나 이상의 전치사구가 ‘부사적 기능을 하는 의미’를 형성하여 동사 관용어구를 형성한 경우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명사군이 동사와 결합하여 관용어구를 형성하는 경우에 살펴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동사가 형용사와 결합하여 관용어구를 형성하는 경우에 관해 고찰해 보도록 하자.

II.2. 형용사와 함께 결합하는 동사 관용어구

형용사 역시 명사와 마찬가지로 동사 관용어구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때 ‘형용사 관용어구’와 ‘형용사와 함께 결합된 동사 관용어구’와의 구분이 중요하다. 헤스키 Hessky(1992, 467-470)는 ‘형용사를 포함하고 있는 동사 관용어구의 구조적 안정성이 어떤 다른 문법적 결합체 보다 견고하기 때문에, 이를 통사·의미적 결합 규칙으로 설명해 내기가 어렵다’고 말한다. 게다가 ‘동사 관용어구 내에 포함되어 있는 형용사는 원래의 형용사 기능, 즉 주어나 목적어를 서술하는 기능은 사라지고, 어휘적인 슬어로서 일부 기능

하는 역할만 하면서도, 문장 내에서는 생략 불가능한 필수보족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관한 예를 살펴보자.

(31) Ich habe mit ihm *halbe und halbe* gemacht.

→ *Ich habe mit ihm gemacht.¹⁾

(32) Wir essen uns *satt*.

→ *Wir essen uns.

위의 예 (31)과 (32)는 형용사와 함께 결합된 동사 관용어구로서, 이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형용사 'halbe und halbe'와 'satt'가 생략될 경우 비문을 형성한다. 그러므로 이 형용사들은 문장 내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보족어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형용사 기저 성분 역시 명사적 기저 성분과 마찬가지로, 역시 동사 관용어구 생성에 독특하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절에서는 이를 동사 구조적 관점에서 유형화시켜,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i) '형용사+동사' 관용어구

(33) klein begeben 저항을 포기하다

(34) üppig werden 뽐뽐해지다

(35) groß ausgehen 좋은 옷을 차려입고 외출하다

위의 예들은 모두 형용사 원급 형태가 동사와 결합하여 관용어구를 형성하는 경우이다.

1) Vgl. Helbig/Buscha 1986, 538f.

ii) '형용사 + 전치사구 + 동사' 관용어구

- (36) nahe am Wasser gebaut haben 매우 예민하다
- (37) gut im Zug haben 혼욕하다
- (38) fest im Sattel sitzen 지위를 확실하게 주장하다

위의 예들은 모두 전치사구 앞에 형용사가 위치하여 동사 관용어구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iii) '형용사/부사 + 동사' 관용어구

- (39) gang und gäbe sein 관습적이다
- (40) hoch und heilig versprechen 진지하게 약속하다
- (41) sanft und selig schlafen 매우 편안하게 잠자다

위의 예 중 (39)는 형용사와 동사가 관용어구를 형성하는 경우이고, (40)과 (41)은 부사와 동사가 관용어구를 형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iv) '형용사/부사 + 동사의 과거분사'로 형성된 관용어구

- (42) frisch/neu gebacken 상황이 새로워진
- (43) gut beschlagen 박식한

위의 예 (42)는 형용사와 동사의 과거 분사형이, (43)은 부사와 동사의 과거 분사형이 각각 결합하여 동사 관용어구를 형성한 경우이다.

II.3. 보족어가 문장에 내재되어 있는 동사 관용어구

이제 다음에서는 보족어가 문에 내재되어 있는 동사 관용어구에 관해 살펴

보도록 하겠다. 보족어를 세분화하면 할수록 ‘동사 결합가’와 ‘동사 의미’ 간의 긴밀도가 강해지고, 또 이로 인해 동사의 부류도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도 보족어가 지니고 있는 필수성과 임의성을 함께 고려하면, 그 수는 더 많아진다. 가령 ‘helfen’과 ‘unterstützen’과 같은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사가, ‘같은 자릿수(2가 동사)’와 ‘같은 유형’의 보족어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그 결합가는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각 동사가 지니고 있는 보족어의 필수성 여부에 따라서 서로 다른 분포를 가지기 때문이다.

A. essen, gewinnen, lernen [1+(1)=2]

B. verlangen, wünschen, sagen [1+1=2]

상기 두 동사 부류의 값 Wertigkeit은 모두 2가이다. 하지만 그룹 A는 필수보족어 하나와 임의보족어 하나를 가지지만, 그룹 B는 필수보족어 2개를 가진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 두 부류를 어떻게 구분하는가의 여부는 ‘삭제테스트’를 통해 알 수 있다. 삭제테스트는 보족어 필수성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대표적인 연구가로 헬비히 Helbig와 쉥켈 Schenkel을 들 수 있다(Vgl. Helbig/Schenkel 1983, 55).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 동사 보족어의 필수성과 임의성이 대부분 표층구조에서 구분이 된다. 하지만 이 방법을 사용해도, 다음과 같이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종종 나타난다.

(44) Er wartet (auf den Freund).

일반적으로는 문의 한 성분이 생략이 될 경우 대부분은 임의보족어나 자유첨가어 freie Angabe로 규정이 되는 것과는 달리, (44)는 필수보족어의 성격을 지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보족어를 삭제했을 때 남아 있는 문이 비문이 아니면서, 동사에 다른 의미가 부여되는 경우도 있다.

(45) Sie brennt (auf Revanche).

(46) Er verspricht sich (ein gutes Ergebnis).

의미가 다르다는 것은 특이한 형태의 동사 결합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동사의 ‘동음이의’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1가 동사 ‘brennen’도 존재하고, 2가 동사 ‘brennen auf etwas’도 존재한다. (45)의 경우 1가 동사로 사용될 경우에는 원래 동사의 어휘적 의미인 ‘불타다’라는 뜻을 지니게 되고, 2가 동사로 사용될 경우에는 ‘복수심에 불타 오르다’라는 뜻을 지니게 된다. 후자의 경우 ‘불타다’는 어휘적 의미가 아닌 전이된 의미를 지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46)은 3가 동사로 사용될 경우 ‘기대하다’라는 어휘적 의미를 가지는 반면, 2가 동사로 사용될 경우 ‘실언하다’라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와 같이 보족어가 생략되어 발화된다 하더라도, 이 문장을 사용하는 화자나 청자는 아무 거리낌 없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한다. 그 이유는 보족어가 생략된 경우에는 이미 관용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문 성분 생략의 개연성은 반드시 필수보족어를 사용해야 하는 동사들의 경우에서도 많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47) Er schiebt. 그는 (암거래 상품을) 밀매한다.

(48) Die Kuh trägt. 암소가 (새끼를) 배고 있다.

(49) Die Henne legt.²⁾ 암탉이 (알을) 낳는다.

(50) Die Sau wirft. 암퇘지가 (새끼를) 낳는다.

(51) Du gibst. 네가 (카드 패를) 돌린다.

(52) Er sitzt, weil er gestanden hat.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감옥에) 있다.

(47)-(52)의 경우는 필수보족어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생략되

2) 니콜라 Nikula(1978, 24f.)에 의하면, 이 예문에는 동사 legt 뒤에 ‘Eier’가 생략되어 있다. 이 문장에서 ‘Eier’가 생략되어 있다는 사실은 굳이 문맥이라는 것을 적용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Eier’가 지니고 있는 외연적 의미 때문이라는 것이다.

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문장을 이해하는 데는 그리 큰 어려움이 없다. 그 이유는 언어 사용자가 필수보족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지적으로 그 의미를 유추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 역시 동사 관용어구의 변형 형태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니콜라(1978, 19)는 ‘문맥에서 자주 생략되는 현상’으로, 바이스게르버 Weisgerber(1983, 106f.)는 ‘문맥 조건적 변이성 kontextuell bedingte Variabilität’에 따른 현상으로 보고 있다. 바이스게르버는 이 변이성을 두 가지, 즉 사건, 행위 등에 대한 우리의 인지가 스테레오 타입 Stereotyp으로 이행되는 상황의 표본과 화자와 청자가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배경지식이 나타나는 장면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위의 예 (47)-(52)는 모두 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행동주체와 연관되어 있는 관습적인 문 성분의 생략이 관용어구를 형성한 경우이다. 이러한 필수보족어의 관습적 생략 이외에도 다음과 같이 기타 여러 가지 문 성분이 생략된 관용어구 또한 존재한다.

(53) Der Verbrecher sitzt. 그 범인이 감옥에 있다.

(54) Er fliegt. 그는 갑자기 해고를 당했다.

(55) Er geht stempeln. 그는 실업수당을 받는다.

(56) Der Mensch denkt, Gott lenkt.

일은 사람이 꾸미고 성패는 하늘에 달려있다.

(57) Sucht, so werdet ihr finden. 찾으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58) Der Anzug sitzt. 옷이 잘 어울린다.

(59) Er benimmt sich. 그는 처신을 잘못한다.

(60) Sie steigen aus.

(61) Sie hat dort abgelegt.

위의 예문들 중 (53), (54)는 부사규정어가 생략된 경우이고, (55)은 필수보족어와 부사규정어가 모두 생략된 경우이다. (56), (57)은 교훈을 나타내는 격언에서 필수 문 성분이 생략된 경우이고, (58), (59)는 수식어가 동사에 관용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는 달리 (60), (61)은 관용적으로 하나의 문장 안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의미가 나타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60)

의 예문에는 ‘그들이 차에서 내린다’라는 의미와 ‘그들은 불확실한 사업에서 손을 뗐다’라는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61)의 예문에서는 ‘그녀는 그곳에서 모자를 벗었다’라는 의미와 ‘그녀는 그곳에서 (사생아를) 낳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이 하나의 동사가 최소 두 가지 의미를 지시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일차적으로는 원래 단어의 의미를 지시하고, 이차적으로는 관용적 표현에 가까운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Brinker 1972, 60ff.; 184ff.).

(62) Karl schreibt einen Aufsatz.

(63) Egon baut einen Hühnerstall.

(64) Paul trinkt eine Cola.

위의 예문은 모두 문장 내에 직접 목적어가 존재하고, 동사 역시 고유어의 어휘 의미를 지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문장들의 직접 목적어가 생략될 경우에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된다. 가령 ‘Karl schreibt’는 ‘Schriftsteller’의 의미로, ‘Egon baut’는 ‘Bauherr’의 의미로, ‘Paul trinkt’는 ‘Trinker’로 의미로 부각된다. 이러한 것은 모두 동사의 체계성과 관계되는 매우 특이한 형태의 내재적 관용어로 볼 수 있다.

또 동사 관용어구가 필수보족어와 함께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자유첨가어가 동사와 결합하여 관용어구를 형성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 경우는 구조 내재적인 결합가와 관계있는 경우와 동사 결합가와 관계없는 경우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65) Gunther hat sein Leben auf eine Karte gesetzt.

군터는 자신의 목숨을 내걸었다.

(66) Gunther redet alle dumm und dämlich, wenn er schlechter Laune ist.

군터가 기분이 안 좋을 때면 정신없이 떠들어 댄다.

(65)의 ‘setzen’은 3가 결합가(obligatorisch und notwendig) 구조를 가져야

하는 것으로, 문장 구조 내의 결합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반면, (66)의 ‘동사 *reden*’은 고유의 결합가와 아무 상관없이 사용되고 있다.

게다가 동사가 목적어 기능을 하지 않는 부사규정어 *Adverbialbestimmung* 와 결합하여 관용어구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다.

(67) *Du hast dich in den Finger geschnitten, weil du die Bitte deiner Frau erfüllt hast.*

너는 부인의 부탁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완전하게 속아버린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동사 관용어구가 형성되는 경우에 관해 모두 고찰해 보았다. 이제 다음에서는 형용사 관용어구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Ⅲ. 형용사 관용어구

일반적으로 형용사 관용어구의 유형을 명확하게 분류해 주는 기준을 정립 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다음의 관용어구를 살펴보자.

(68) *sauer sein / werden*³⁾ 기분이 상해 있는

(69) *voll sein* 술 취한

(70) *schwer von Begriff sein* 이해가 느리다

위의 예는 모두 *sein, werden* 동사와 형용사가 결합하여 관용어구를 형성하는 경우로, 일반적으로 동사 관용어구로 규정된다. 플라이셔(1997, 147)는 그 이유를 ‘*platt sein*’, ‘*sauer sein/werden*’, ‘*voll sein*’ 등을 결속력이 강한 단어 결합체로 고찰할 경우, *sein*과 *werden*이 필수 성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동사 관용어구로 다루어진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 ‘만약 이 관용어구에서 동사

3) 예문 (68)과 (69)는 Fleischer(1997, 147)를 참조할 것.

를 제외한 형용사만 고찰해 볼 경우 형용사가 결속력이 강한 단어 결합체에서 분리되어 나와서 원래 형용사가 지니고 있는 어휘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를 형용사 관용어구로 분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위의 관용어구는 모두 동사가 없을 경우, 응집력 있는 관용어구로서의 역할은 더 이상 사라져 버린다. 그렇다면 형용사 관용어구와 동사 관용어구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본고에서는 형용사 관용어구를 구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호이저만 Häusermann(1977, 110)에 의거하여 정립해 보고자 한다.

첫째, 형용사 관용어구는 그 자체가 술어 보족어 기능을 가져야 한다.

(71) Das ist recht und billig.

둘째, 형용사 관용어의 어형변화는 가능하며, 형용사 통사적 기능에 상응해야 한다.

(72) Der Schüler ist gut - der gute Schüler

(73) Er ist gut gepolstert.

- Gestern habe ich eine gut gepolsterte Frau getroffen.

(74) Sie ist zum Malen schön.

- Sie ist eine zum Malen schöne Frau.

그러나 위의 예 (71)-(74)와는 달리 아래의 예문에서 형용사가 수식어로서의 부가적 기능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형용사 관용어구가 아닌 동사 관용어구로 분류된다.

(75) Der Schüler ist schwer von Begriff.

*- der von Begriff schwere Schüler

이와 같이 '형용사의 부가적 기능'은 형용사 관용어구와 동사 관용어구를 구별해 주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플라이셔(1997) 역시 이를 기준으로 형용사

관용어구를 다음과 같이 유형 분류하고 있다.

i) ‘형용사/부사 + 과거분사’

- (76) schief gewickelt 오류가 있는
- (77) schwarz angeschrieben 평판이 나쁜
- (78) dünn gesät 거의 존재하지 않는

(76)-(78)은 형용사 원급과 동사의 과거분사가 결합하여 형용사 관용어구를 형성하는 경우이다. 이외에도 형용사의 비교급 구조와 동사의 과거분사가 결합하는 경우, 예를 들어 (76)을 ‘schief gewickelt’로, (78)을 ‘dünn gesät’으로 변형한 형태 역시 형용사 관용어구로 다룰 수 있다고 본다. 또 아래와 같은 분사 구조 역시 이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 (79) nicht auf den Kopf gefallen 어리석지 않은
- (80) von allen guten Geistern verlassen 제 정신이 아닌

그러나 비 분사구조는 ‘schwer von Begriff sein’처럼 동사 관용어구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 (81) fertig auf dem Docht sein (완전히 지친)
- (82) weit vom Schuss sein (안전한)

관용어구 속에 동사 성분을 현재분사 또는 과거분사의 형태로 만들어 부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 역시 모두 동사 관용어구로 간주하는 것이 자명하다.

- (83) böses Blut machen 큰 불쾌감을 자아내다
- böses Blut machende Gerüchte

ii) ‘형용사 + 형용사’

(84) erstunken und erlogen 진실되지 않은

- erstunkene und erlogene Geschichte

(85) fix und fertig 완전히 지친

- Der fix und fertige Konrad wurde hereingeschleppt.

위의 예는 형용사와 형용사가 결합하여 형용사 관용어구를 형성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84)는 과거분사에서 파생된 두 형용사가 결합하여 관용어구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85)는 순수 형용사가 두 개 결합하여 관용어구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iii) ‘zum + 동사 부정형 + 형용사’

이러한 구조의 형용사 관용어구는 형용사의 의미가 특히 강화되는 특수한 형태의 관용어구이다.

(86) zum Malen schön 매우 아름다운

- Die Frau ist zum Malen schön.

(87) zum Brechen voll 꼭 메운

- Als wir Viertel vor acht in den Saal kamen, war er schon zum Brechen voll.

위의 예 (86)과 (87)은 형용사 앞에 ‘zum + 동사 부정형’이 결합되어 관용어구를 형성하는 경우로, 표층구조에서 동사 부정형이 ‘중성명사’로 변화되어 생겨난 경우이다.

IV. 명사 관용어구

의미 특성에서 볼 때, 명사 관용어구는 명사가 지니고 있던 고유의 어휘의 미가 완전히 퇴색된 경우로, 문장 내의 구성 성분 간의 내적 일치가 생겨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88) Er ist *der klein Mann*. 단순한 남자

(89) *Der Stein des Anstoßes* war sein scharfer Artikel
gegen den Bürgermeister. 분노를 자아내는 동인

그러나 ‘*kalte Dusche, dicke Luft*’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의미가 내포된 관용어구도 플라이서는 언급하고 있다(Vgl. Fleischer 1997, 146). 그는 핵심어나 비 핵심어(부가어) 중 어느 하나에 의미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를 비속어적인 관용어구로 언급하면서, 핵심어에서 의미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때 관용어구와 비 관용어구 사이에서 의미 조화는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90) Ich hörte mir *seine faulen Ausreden* nicht an. 뻔한 핑계

그러나 핵심어가 관용어화된 의미변화에서는 조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

(91) Er hörte sich *die kalte Dusche* ungerührt an.

그리고 비 핵심어가 전이되어 명사 관용어구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다.

(92) *blutiger Laie* 아주 경험이 없는 초보자

플라이셔는 SNS를 통한 정치·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대중들 사이에 사용되는 매우 강한 역동성을 지닌 신조어 중 일부를 명사 관용어구로 인정하려는 의도를 볼 수 있다.⁴⁾ 이와 같이 언어 외적인 사회적인 영향으로 인해 생겨난 단어 결합체들은 신문, 방송과 같은 언론 매체를 통해 일정한 형태로 관용어구의 모습을 확고하게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언어 현실의 단면을 보여주는 상투어들은 어휘·의미적 단위로서 어휘화 *lexikalisiert*된 것이 아니라 스테레오 타입 구성체로 제도화 *institutionalisiert*된 것이기 때문에(Vgl. Matthews 1974, 193f.) 언어 단위와는 달리 상당 부분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Vgl. Telija 1975, 426ff.).

- (93) öffentliche Meinung 여론
- (94) historisches Ereignis 역사적 사건
- (95) Sonne und Mond 해와 달
- (96) herrschende Klasse 지배계급

명사 관용어구는 위에서 밝혔듯이 핵심어와 부가어로 구성되어 있다 (Fleischer 1997, 142-147).

i) ‘형용사 부가어 + 명사’

- (97) die alte Mär 진부한 이야기
- (98) schneller Hirsch 오토바이
- (99) ältere Bürger 연금 생활자
- (100) werdene Mutter 임신한 부인
- (101) gelehrtes Haus 학자
- (102) die erste Hilfe 응급처치

4) Vgl. Fleischer 1997, 58f. 그는 이러한 단어 결합체를 ‘Nominationsstereotype’으로 명명하면서, 이것이 구성 성분의 의미 외적인 의미로 보면서 명사 사이의 관계가 견고한 Tag und Nacht, Freud und Leid 등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위 관용어구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조로, 부가어는 형용사(원급, 비교급, 최상급), 현재분사, 과거분사 등으로 구성된다.

ii) '명사 + 2격 명사 부가어'

이 형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명사 관용어구로, 1차 내지 2차 성분이 부가되어 확장체로 나타나는 경우이다.

- (103) das Auge des Gesetzes 경찰
- (104) der Stein des Anstoßes 화를 내게 하는 동인
- (105) die grünen Lungen der Großstädte 대도시에 있는 공원이나 숲
- (106) das edle Blut der Reben 포도
- (107) das Grüne Herz Deutschlands (Thüringen)

iii) 명사 + 전치사 부가어

- (108) ein Dach über dem Kopf 피난처
- (109) der Mann auf der Straße 보통시민
- (110) Liebe auf den ersten Blick 급하게 타오르는 연정
- (111) der reiche Onkel aus Amerika 알려지지 않은 스폰서

iv) 명사 + 어형변화 없는 명사

- (112) Feind Nummer Eins 제 1의 적
- (113) Vitamin B 좋은 관계
- (114) ein Häufchen Elend 의기소침한 사람

v) 명사쌍

- (115) Geld und Gut 모든 재산
- (116) Tag und Nacht 밤낮으로

(117) Lug und Trug 사기

(118) Leib und Leben 건강과 죽음

V. 결론

관용어구 개념은 학자마다 여러 양상으로 이해되어 왔다. 부르거는 구성 성분의 의미가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전이된 것으로 관용어구의 특성에 대해 연구한 반면, 플라이셔는 단어 결합체가 통사-의미적 결합 규칙성으로는 설명 불가능한 것으로, 또 혹자는 관용어구의 자질로 숙어성 *Idiomatizität*을 지적하면서 그 정의를 대신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관용어구의 정의가 너무 다양해서 본 논문에서는 관용어구를 구성 성분의 합과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 것에 한정시키고, 추가적으로 특수화 과정을 통해서 등장한 단어 결합체를 명사 관용어구에 추가하면서 동사, 형용사, 명사 관용어구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아울러 이들의 유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관해서도 고찰해 보았다.

아쉬운 점은 본고에서 이러한 관용어구들을 화용론적 입장에서 다루지 못했다는 점이다. ‘Nun halt mal die Luft an!’ 혹은 ‘Bitte beruhigen Sie sich!’에서처럼 관용어구가 화자와 청자 간의 사회적인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점, ‘zweite Lohntüte’나 ‘erstaunliche Blüten’과 같이 전달되는 사실에 화자의 정서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첨가될 수 있다는 점,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jn. übers Ohr hauen’이라는 표현을 쓰거나, ‘sterben’ 대신에 ‘das Zeitliche segnen’, ‘Abschied nehmen’, ‘daran glauben müssen’, ‘den Löffel abgeben’ 등을 사용한다는 점(Vgl. Fleischer 1997, 218)을 결합가 관점에서 재조명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Brinker, Klaus(1972): Konstituentenstrukturgrammatik und operationale Satzgliedanalyse. Methodenkritische Untersuchungen zur Syntax des einfachen Satzes im Deutschen. Frankfurt a. M.
- Duden(2002): Die Redewendungen. Wörterbuch der deutschen Idiomatik. 2. Aufl., Mannheim.
- Fleischer, Wolfgang(1997): Phraseologie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2. Aufl., Tübingen.
- Häusermann, Jürg(1977): Phraseologie, Hauptprobleme der deutschen Phraseologie auf der Basis sowjetischer Forschungsergebnisse. Tübingen.
- Helbig, Gehard/Buscha, Joachim(1986): Deutsche Grammatik. Leipzig.
- Helbig, Gehard/Schenkel, Wolfgang(1983): Wörterbuch zur Valenz und Distribution deutscher Verben. Tübingen.
- Hessky, Regina(Hrsg.)(1992): Grundfragen der Phraseologie. In: Vilmos Ágel/Regina Hessky, offene Fragen-offene Antwort in der Sprachegermanistik. Tübingen.
- Matthews, Peter Hugoe(1974): Morphology. An introduction to the theory of word-structure. Cambridge.
- Nikula, Henrik(1978): Kontextuell und lexikalisch bedingte Ellipse. Åbo.
- Palm, Christine(1997): Phraseologie. Eine Einführung. Tübingen.
- Rothkegel, Annely(1973): Feste Syntagmen. Grundlagen, Strukturbeschreibung und automatische Analyse. Tübingen.
- Weisgerber, Monika(1983): Valenz und Kongruenzbeziehungen. Frankfurt a. M.
- Welke, Klaus(1988): Einführung in die Valenz- und Kasustheorie. Leipzig.

Zusammenfassung

Eine Studie zur Valenz in der deutschen Phraseologie

Chong, Sung-Hwa (Changwon National Uni)

In der vorliegenden Arbeit habe ich vor, die deutsche Phraseologie aus der Perspektive der Valenztheorie zu betrachten. Unter semantischen Gesichtspunkten teilt Rothkegel Phraseologismen in feste Syntagmen erster Ordnung und feste Syntagmen zweiter Ordnung ein, wobei die erste Hauptgruppe in unserem Zusammenhang wichtig ist. Unter festen Syntagmen erster Ordnung versteht man die exozentrisch determinierten, festen Syntagmen, deren Bedeutungen im Wörterbuch nicht zu finden sind. Sie verweisen auf die Phraseologismen, die durch den langen Prozess der Metaphorisierung allgemeine Akzeptanz finden und damit eine ganz andere Bedeutung als im Wörterbuch gewinnen. In meiner Arbeit gehe ich anhand von Verben, Adjektiven und Substantiven auf die verschiedenen Syntagmentypen ein. Als Forschungsgegenstand stehen auch die Syntagmen in den Massenmedien, in der Literatur und in berufsspezifischen Situationen, also die durch die Spezialisierung entstandenen Syntagmentypen im Mittelpunkt.

Im zweiten Kapitel erkläre ich verbale Phraseologismen unter drei Aspekten; erstens im Fall ihrer Verbindung mit Substantiven bzw. Substantivgruppen, zweitens im Fall ihrer Verbindung mit Adjektiven bzw. Adjektivgruppen, drittens in dem Fall, dass die Ergänzung einem Satz inhärent ist.

Im dritten Kapitel erkläre ich adjektive Phraseologismen unter drei Aspekten; erstens im Fall der Adjektiv-Partizip Perfekt-Verbindungen, zweitens im Fall der Adjektiv-Adjektiv-Verbindungen, drittens im Fall der

‘zum + Infinitiv’-Adjektiv-Verbindungen.

Im vierten Kapitel gehe ich auf substantivische Phraseologismen ein. Fleischer subsumiert die weit verbreiteten politischen und sozialen Neologismen unter substantivische Phraseologismen. In Bezug auf Fleischers Theorie werden hier substantivische Phraseologismen aus der Perspektive der Valenztheorie in fünf Typen aufgeteilt.

주제어: 관용어구, 성구문, 결합가, 은유화, 특수화

Schlüsselbegriffe: Phraseologismus, Phraseologie, Valenz,
Metaphorisierung, Spezialisierung

필자 E-Mail: chongsh@sarim.changwon.ac.kr

논문투고일: 2015. 10. 20, 논문심사일: 2015. 11. 15, 게재확정일: 2015. 11. 25.